

경제

포스코 성과공유로 지역중소 키운다

광주·전남 전국서 가장 가난

기당당 순자산 꼴찌...전국 평균 부채 5291만원

지역사회·협력사 동반성장 박차 성과공유 보상금 1600억원 출연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지난 12월 초 변압기 전기센터 생산업체인 산일전기를 방문해 현장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다.

포스코가 지역, 패밀리아 등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년사를 '봉산개도(逢山開道)로 삼고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천명했다. 봉산개도의 뜻은 삼국지에 나오는 말로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뜻으로 풀려서 지 않고, '말밭 한밭 꾸준히 앞으로 나감을 일컫는 말이다.

'FOCUS'(포커스)는 포스코형 성과공유제의 새로운 이름으로 성과공유를 통해 포스코와 협력기업 동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포커스 의미와 함께 포스코의 다양한 동반 프로그램을 이용해 협력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열린 혁신 기반의 협업을 통해 수명, 납기, 품질 등의 향상 성과를 사전에 합의된 기준에 따라 공유한다는 의미다. 특히 포스코는 '3T'(Trust-상호신뢰, Together-동반성장, Tomorrow-미래지향)를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상생협력 모토로 정하고 중소기업과의 미래지향적 관계구축 및 상생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임원 동반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월 1회 해당 중소기업사 및 1~4차 협력 중소기업을 방문해 지원하고 있으며, QSS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혁신 전문인력 양성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승관 광양제철 소장은 "포스코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지역은 그에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 변화를 겪기 마련이므로 지역과 기업은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통과 상호 배려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올 초부터 대-중소 기업 성과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서울(4억5600만원), 경기(3억8200만원), 울산(3억1100만원) 등 평균 자산액이 높은 지역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자산이 적은 만큼 부채도 적었다. 전남의 경우 평균 부채액이 2021만원

전남의 평균자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광주도 전국평균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남지역 평균 자산액은 1억78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의 평균 자산액은 2억1900만원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으며 강원(2억900만원), 전북(2억1200만원)과 함께 자산 규모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광주·전남의 평균 자산액은 전국 평균(3억1400만원)을 훨씬 밑돌았으며 서울(4억5600만원), 경기(3억8200만원), 울산(3억1100만원) 등 평균 자산액이 높은 지역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광주는 3525만원으로 전국 평균 부채액(5291만원)보다 낮았고 전북(2951만원), 경북(2774만원), 충남(3209만원) 등과 함께 부채가 적은 지역에 해당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도 적었다. 기업의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전남은 순자산이 1억58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가 1억8300만원으로 강원(1억7600만원)과 함께 순자산이 적은 지역에 꼽혔다. 전남은 전체자산 중 금융자산(5247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9.4%였으며 부채비율은 11.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총부채 중 금융부채가 1668만원(8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중 신용대출(448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였다.

광주는 저축액이 5997만원으로 서울·경기·울산과 함께 저축액이 높은 지역에 해당했다. 또 총자산에서 금융자산(6737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8%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6.1%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으며 금융부채는 2805만원으로 전체 부채 중에서 79.5%를 차지했다. 이중 담보대출(2033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국의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5291만원으로 부채액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빛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4.6%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 늘었다. 평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억620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7% 늘었다.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6.8%,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비율은 63.8%로 1년 전 보다는 가구의 재무건정성이 다소 개선됐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농어촌공사 印尼 댐건설사업 진출 6900만 달러 규모 까리안 댐 감리 계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가 인도네시아 댐건설사업에 진출했다. 박재순 사장과 모하마드 하산 수자원장등은 지난 21일 자카르타에 공공사업부에서 EDCF(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까리안 댐 건설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 공사감리 비용은 총 공사비 2억5000만 달러 중 6900만 달러를 차지한다. 내년엔 업체선정과 더불어 착공해 2017년 완공 예정인 까리안 댐은 자카르타 서부와 반덴주 주민 400만명

에게 생활 및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이다. 저수량 2억은 우리나라 팔당댐 규모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까리안 댐 건설 타당성조사 및 설계를 수행한 바 있으며, 공사감리를 맡게 된 만큼 국내 건설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재순 사장은 "수자원 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앞으로 태국 등 농업분야 SOC 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승기자 song@kwangju.co.kr

장흥 바이오산단 분양가 15% 인하 전남개발공사 3.3㎡당 5만7000원 내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15%가량 내린다. 전남개발공사는 23일 "중전 3.3㎡당 38만5000원인 분양가를 32만8000원으로 5만7000원(14.8%)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산단의 기업유치와 분양활성화를 위해 최근 조성원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입지여건과 주변 산단에 비해 분양가가 다소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분양가 인하 결정은 산단 내 분양 가능 면적이 늘고 공사비 절감, 지자체(장흥군)의 기반시설(105억원) 추가 지원 등으로 가능해졌다. 이 가격대는 영광대마산단, 화순일반산단 보다도 3.3㎡당 각각 5만9000원, 6만6000원 저렴하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입주협의 중인 유다솔 등 5개 업체(총 12만3000

㎡, 140억원)와의 계약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91만4000㎡를 3단계로 나눠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육시설 등 친환경적이고 특성화된 산업단지조 조성중이며 지난 6월 1단계(55만9000㎡) 공사가 완료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Rank (등위) and Lot Count (당첨수). Lists various lot numbers and their corresponding counts.

Table with 2 columns: Lot Number (당첨번호) and Lot Area (2등분/3등분). Lists specific lot numbers and their areas.

광주 상공인의 밤 행사 상공대상 4명 시상식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지역 상공인과 각급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광주상공대상 시상식 및 상공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 상공인을 대표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포용과 화합을 통해 국민 대표함을 이루고 지역발전의 선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광



주상공대상은 이기상 대표전기 회장, 송흥기 금호에이치터 상무, 최석 유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회장, 김국용 우리로공통심 회장 등 4명이 수상했다. /박영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바젤 II 내부등급법 적용 승인 신용평가·리스크 관리 글로벌 수준 인증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간 준비를 거쳐 지난 4일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원의 '내부등급법 승인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1일 '바젤 II 기본내부등급법' 적용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적 협약인 바젤 II는 각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으로 나누어 리스크 관리 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표준방법은 바젤 II 협약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리스크를 산출하면 된다. 이에 비해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

모형으로 모든 리스크를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광주은행의 바젤 II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승인은 신용평가와 리스크관리 능력이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임을 감독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광주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바젤 II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함께번에 승인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최재희기자 lion@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eonnam,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promotional offers for different regions like Europe, Dongnam, and Jeonnam.

광주전 : 롯데백화점 광주점, 롯데마트 첨단, 롯데마트 상무, 롯데마트 월드점, 롯데마트 수원, 북구점, 기아점, 무등점, 문화전당점, 서광점, 광안점, 동성점, 전남점 : 롯데마트 여수, 롯데마트 여천, 순천점, 목포점, 광양점